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3권 4호
Journal of Fashion Design
Vol.23 No.4 (2023) pp.155-175
http://dx.doi.org/10.18652/2023.23.4.9

1960년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고찰
-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디자이너의 출현과 양장점 및 브랜드 운영방식 전환을 중심으로 -

박 신 미+
국립안동대학교 패션라이프스타일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매체 자료에 근거하여 1960년대에 활동한 한국 패션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이들의 행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체 자료에 근거하여 새롭게 발굴된 1960년대 디자이너들은 누구인가이다. 둘째, 1950년대에 활동한 제1세대 디자이너들에게 사사를 받아 데뷔한 디자이너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패션사적 행보는 어떠했는가이다. 셋째, 예술학과 인문학을 전공한 디자이너는 누구이며 이들과 기존 디자이너들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이다. 넷째, 1960년대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활동한 디자이너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가이다. 다섯째, 매체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추출된 디자이너들의 행보는 무엇이며, 선행연구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밝혀진 패션사적 오류와 사실은 무엇인가이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내용분석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해결을 위해 인쇄 매체 자료인 신문자료 총 244편,『여원』181편,『여상』158편을 비교 분석하여 근거에 기반한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본고는 기초자료를 매체별로 1차 분류하고 이를 연대별, 디자이너별로 심층 분석한다. 매체 자료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48명의 1960년대 데뷔 디자이너와 40개의 양장점 혹은 브랜드가 추출되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는 1950년대와 다르게 국내 · 외의 패션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받은 디자이너들과 더불어 인문학, 회화, 조각, 연극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닌 디자이너들이 출현하였고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디자이너들의 행보가 다각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파리 패션의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1950년대부터 활동한 제1세대 디자이너, 1960년대를 이끌어나간 제2세대 디자이너, 1970년대를 주도할 제3세대 디자이너가 함께 한국 근현대패션의 시스템을 정립한 시기였다. 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패션시스템을 정립한 1960년대 한국 패션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행보를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1960년대 한국패션, 한국 근현대패션사, 한국 패션디자이너, 여상, 여원

본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1069739)
+교신저자: 박신미, e-mail: fashion@anu.ac.kr
접수일: 2023년 11월 23일, 수정논문접수일: 2023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21일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중반 한국 패션디자이너 연구는 1950년대에 명동에서 활동한 한동식(한양장점), 오송죽과 심명언(송옥양장점), 서수연(아리사양장점), 김경희(마드모아젤), 이종천(살롱 드 모드)이 연구된 학술논문 1편이 있고, 제1세대 디자이너 중 생존 디자이너인 노명자(노라노의 집)는 구술채록연구 1편, 학술논문 6편이 게재되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AAA, 2013; Han, 2012a; Han, 2012b; Park, 2014a; Park, 2014b; Park, 2016; Park, 2017; Park, 2020b). 또한, 최경자의 경우는 석사학위논문 1편과 학술논문 2편, 최경자와 노명자의 비교논문 1편이 연구되어 최경자(국제양장사)와 노명자의 경우는 심층연구가 이루어져 있다(Lee, 2015; Lee & Soh, 2016; Park, 2019; Park, 2020a). 하지만, 1960년대 한국패션은 개괄 연구 논문 1편이 발표되어 있어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개별디자이너의 행보 고찰은 부재한 상태이다(Park, 2022). 선행연구들은 20세기 한국 근현대패션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국패션의 현대화가 이루어진 1960년대 활동한 개별디자이너의 발굴은 한국 근현대패션사의 원류를 밝혀내는데 필요한 연구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1세대 디자이너들과 함께 활동하며 패션시스템을 정립한 1960년대에 출현한 제2세대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행보를 분석하여 한국 근현대패션의 객관적 사실을 고찰하려 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매체 자료에 근거하여 1960년대에 활동한 한국 패션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이들의 행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체 자료에 근거하여 새롭게 발굴된 1960년대 디자이너들은 누구인가이다. 둘째, 1950년대에 활동한 제1세대 디자이너들에게 사사를 받아 데뷔한 디자이너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패션사적 행보는 어떠했는가이다. 셋째, 예술학과 인문학을 전공한 디자이너는 누구이며, 이들과 기존 디자이너들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이다. 넷째, 1960년대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활동한 디자이너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가이다. 다섯째, 매체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추출된 디자이너들의 행보는 무엇이며, 선행연구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밝혀진 패션사적 오류와 사실은 무엇인가이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내용분석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해결을 위해 신문자료 총 244편, 『여원』 181편, 『여상』 158편을 비교 분석하여 근거에 기반한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본고는 기초자료를 매체별로 1차 분류하고 이를 연대별, 디자이너별로 심층 분석한다. 또한, 이미 선행연구가 진행된 최경자, 노라노를 비롯한 제1세대 및 제2세대 디자이너들은 연구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한, 연구 대상 자료 중 『여원』과 『여상』 1960년 자료와 『여상』 1961년, 1968년, 1969년 자료, 그리고 1960년 『매일경제』, 1961년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1962년, 1963년, 1964년, 1965년 『매일경제』는 본 연구의 기초자료 분류에서 추출한 제2세대 디자이너의 기사 혹은 화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연구 대상 자료에서 제외한다.

본고에서 디자이너의 데뷔 시점에 따라 제1세대 디자이너는 1960년 이전 양장점을 오픈하거나 패션쇼 혹은 전시를 개최한 디자이너로, 제2세대 디자이너는 1960년부터 1968년까지 패션컬렉션을 통해 데뷔한 디자이너로 분류한다.

3. 인용 및 표기법

본 연구는 최고 64년 이상 된 매체 자료를 고찰함에 있어 간접 인용의 경우에도 주요 단어의 표기법은 원전에 따르며 문장 내에 일부라도 원전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는 출처를 밝힌다. 예를 들어, 오후를 지칭하는 '하오'의 경우는 해당 문장이 직접 인용이 아니더라도 원전의 표기법에 따른다. 또한, 본고에서는 디자이너 명과 양장점 명 중에서는 디자이너 명을 우선 기술하며 양장점 명은 디자이너 명을 기술한 후 '()'에 병기한다. 더불어, 인용의 경우 원전의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따르며, 의미 전달이 필요한 경우 본문은 '()'에 독음 및 의미를 기술한다(Park 2022).

Ⅱ. 연구 대상 자료 분석을 통해 본 1960년대 사회적 환경

1. 연구 대상 자료 분석

본 연구 분석 대상 자료 중『여원』과『여상』에는 진태옥『여원』1편과『여상』1편, 이미원『여원』4편, 한계석『여원』2편과『여상』4편, 조영자『여원』4편, 소영희『여원』18편과『여상』9편, 이용렬『여원』10편과『여상』11편, 하영애『여원』10편과『여상』2편, 김연『여원』18편과『여상』9편, 김수선『여원』1편과『여상』1편, 박문자『여원』25편과『여상』9편, 박윤정『여원』3편과『여상』1편, 이병복『여원』5편과『여상』2편, 도재은『여원』7편과『여상』1편, 안성공『여원』12편과『여상』12편, 지미 리『여원』5편과『여상』1편, 잭키 성『여원』1편과『여상』1편, 김정수『여원』2편과『여상』41편, 윤영섭『여원』4편, 한희도『여원』5편과『여상』2편, 김정애『여원』2편, 김기택『여원』1편, 최광호『여원』1편, 이상덕『여원』1편, 박의상『여원』1편, 이은주『여원』1편, 조원자『여상』3편, 조원주『여상』13편, 윤순모『여원』8편, 박정일『여원』1편, 조경희『여원』24편과『여상』22편, 윤정옥『여원』8편과『여상』9편이 추출되었으며 디자이너별 게재 연도 및 빈도 분석은 <Figure 1>과 같다.

신문자료의 경우는 이미원『경향신문』3편,『동아일보』1편,『조선일보』2편, 한계석『경향신문』2편,『조선일보』1편, 조영자『경향신문』1편,『동아일보』1편,『조선일보』1편, 소영희『경향신문』3편,『동아일보』2편,『조선일보』1편,『매일경제』1편, 이용렬『경향신문』2편,『조선일보』4편, 하영애『경향신문』2편, 김수선『경향신문』4편,『매일경제』1편, 박문자『경향신문』7편,『동아일보』3편,『조선일보』5편, 박윤정『경향신문』11편,『동아일보』7편,『조선일보』5편,『매일경제』2편, 이병복『경향신문』15편,『동아일보』26편,『조선일보』19편,『매일경제』1편, 도재은『경향신문』8편,『동아일보』3편,『조선일보』1편,『매일경제』1편, 안성공『경향신문』4편, 잭키 성『매일경제』1편, 김정수『동아일보』1편, 윤복희『경향신문』1편,『매일경제』2편, 한희도『경향신문』12편,『동아일보』7편,『조선일보』4편,『매일경제』1편, 김정애『경향신문』1편, 윤영숙『동아일보』1편, 한영수『매일경제』1편, 이은주『조선일보』1편, 배규정『조선일보』1편, 조경희『경향신문』21편,『동아일보』9편,『조선일보』13편,『매일경제』6편, 윤정옥『경향신문』5편,『동아일보』2편,『조선일보』4편이 추출되었으며 디자이너별 게재 연도와 매체 게재 연도 및 빈도 분석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1961	1962	1962	1963	1963	1964	1964	1965	1965	1966	1966	1967	1967	1968	1969
	Yeowon	Yeosang	Yeowon	Yeosang	Yeowon	Yeosang	Yeowon	Yeosang	Yeowon	Yeosang	Yeowon	Yeosang	Yeowon	Yeowon	Yeowon
Tae-ok Jin										1					1
Mi-won Lee											4				
Gye-seok Han				4									2		
Young-ja Jo														2	2
Young-hee So										9	5		3	4	6
Yong-ryeol Lee								5		5		1		4	6
Young-ae Ha								1	10			1			
Yeon Kim									10	9	5		3		
Soo-sun Kim												1		1	
Mun-ja Park			1				2		10	9	5		4	1	2
Yoon-jeong Park										1	1		1	1	
Byung-bock Lee	1			1	1					1	1		2		
Jae-eun Doh									1		4	1	2		
Seong-gong Ahn										11	7	1	4	1	
Jimmy Lee										1	3		2		
Jackie Seong										1			1		
Jung-soo Kim		2		18		12		8	2	1					
Young-sub Yoon															4
Bock-hee Yoon															
Hee-do Han					3	2	2								
Jung-ae Kim															2
Gi-taek Kim										1					
Kwang-ho Choi										1					
Sang-deok Lee										1					
Ui-sang Park										1					
Young-sook Yoon															
Young-soo Han															
Eun-joo Lee														1	
Gyu-jeong Bae															
Won-ja Jo										3					
Won-joo Jo										13					
Yi-soon Seo															
Soon-mo Yoon									7		1				
Jeong-il Park														1	
Kyung-hee Jo									3	20	10	2	3	5	3
Jeong-ok Yoon										8	2	1	2	2	2

Figure 1. Distribution of publication years and frequencies categorized by designer during the 1960s『Yeowon』,『Yeosang』.

		Mi-won Lee	Gye-seok Han	Young-ja Jo	Young-hee So	Yong-ryeol Lee	Young-ae Ha	Soo-sun Kim	Mun-ja Park	Yoon-jeong Park	Byung-bock Lee	Jae-eun Doh	Seong-gong Ahn	Jackie Seong	Jung-soo Kim	Bock-hee Yoon	Hee-do Han	Jung-ae Kim	Young-sook Yoon	Young-soo Han	Eun-joo Lee	Gyu-jeong Bae	Kyung-hee Jo	Jeong-ok Yoon
1960	Kyunghyang Shinmun										2													
1960	Dong-A Ilbo									4	1													
1960	Chosun Ilbo										3													
1961	Chosun Ilbo																1							
1962	Kyunghyang Shinmun								1		3						1							
1962	Dong-A Ilbo										4						3							
1962	Chosun Ilbo										6													
1963	Kyunghyang Shinmun		1						1	1	1	1					2							
1963	Dong-A Ilbo								2			1			1		3		1					
1963	Chosun Ilbo		1						2		1													
1964	Kyunghyang Shinmun									2							1							
1964	Dong-A Ilbo																							1
1964	Chosun Ilbo									1	1													
1965	Kyunghyang Shinmun	2									1												1	
1965	Dong-A Ilbo	1			1						1	2											3	
1965	Chosun Ilbo	2			1						1	1											2	4
1966	Kyunghyang Shinmun									1	3	2	2										4	
1966	Dong-A Ilbo										2												1	
1966	Chosun Ilbo																						4	
1966	Maeil Business																						1	
1967	Kyunghyang Shinmun		1				1	4	2	5	2	2	2				1						9	2
1967	Dong-A Ilbo								1	1	7												1	1
1967	Chosun Ilbo					1			1	2							2						4	
1967	Maeil Business							1		1		1		1										
1968	Kyunghyang Shinmun			1	3	2			2	1	1	3					2						7	1
1968	Dong-A Ilbo			1	1					2	7												3	
1968	Chosun Ilbo			1		3			2	1	2												3	
1968	Maeil Business										1						1			1			2	
1969	Kyunghyang Shinmun	1					1		1	1	2					1	5	1						2
1969	Dong-A Ilbo										4						1						1	
1969	Chosun Ilbo									1	5						1				1	1		
1969	Maeil Business				1					1						2								

Figure 2. Distribution of publication years and frequencies categorized by designer during the 1960s 『Kyungyang Shinmun』, 『Dong-A Ilbo』, 『Chosun Ilbo』, 『Maeil Bussiness News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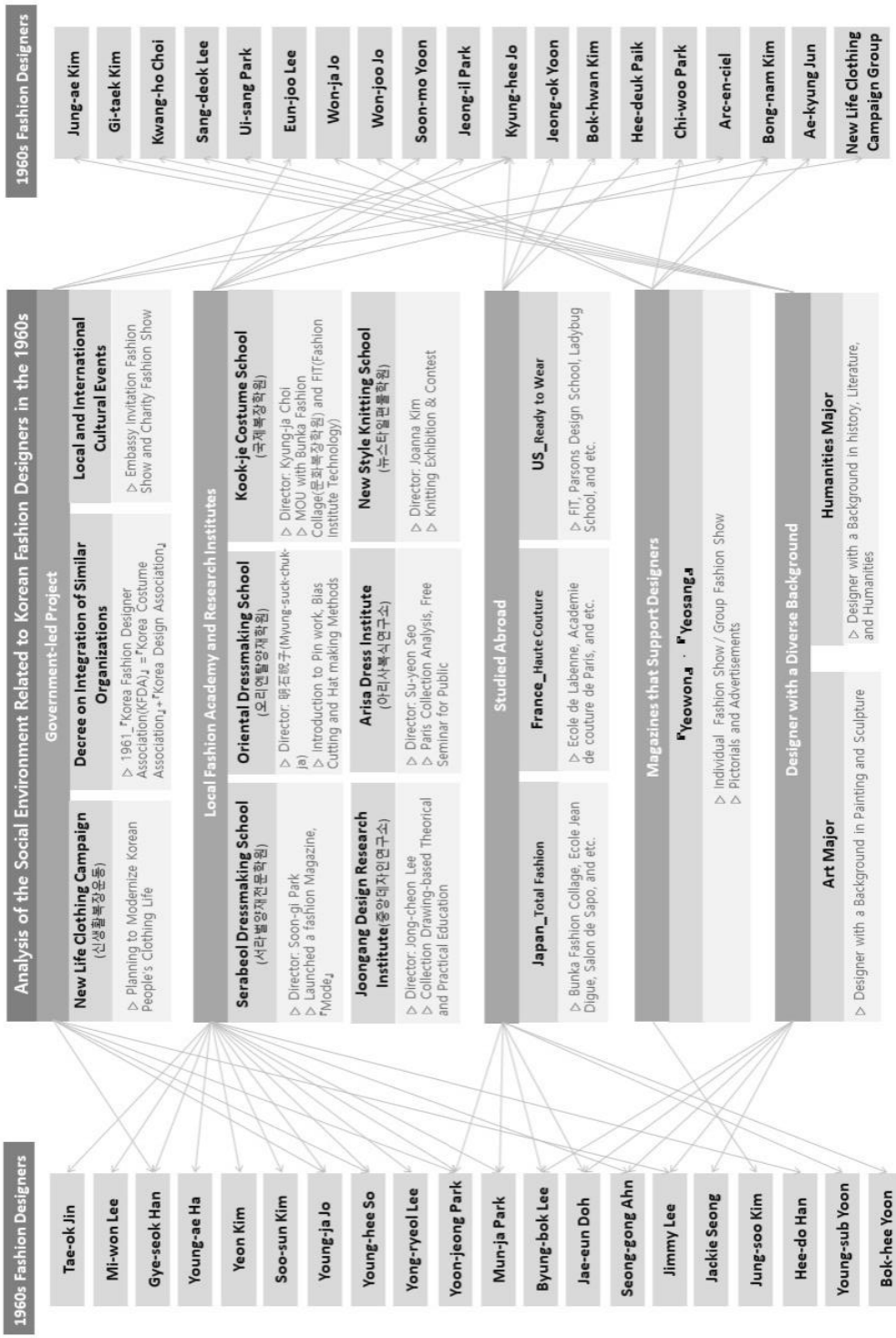

Figure 3. Analysis of the social environment related to second-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s in the 1960s.

2. 1960년대 사회적 환경과 제2세대 디자이너의 출현

1960년대는 한국패션의 현대화가 정착되고 디자이너 맞춤복 양장점, 디자이너 기성복 양장점, 상업기성복 브랜드의 공존이 시작된다. 또한, 이 시기는 1950년대부터 원단을 생산하며 국가기관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상업브랜드들이 론칭하여 한국패션 시장의 다각화와 시스템화가 이루어지고, 디자이너 양장점 역시 사회적 환경에 발맞추어 변화한 시기이다(Figure 3).

1960년대는 현대적 의생활 장려와 사회적 규범의 재정립이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은 1961년 한국인의 의생활 현대화를 위해 기획된 「신생활복장운동」이다(“Actresses who”, 1961). 또한, 1961년 정부 부처인 사회부는 각종 단체의 난립과 경쟁을 막기 위해 유사단체 통합령을 내리는데 복식 부문에는 1961년 8월 27일 대한복식연우회와 한국디자인협회가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KFDA)로 통합된다(Choi, 1999; Park 2022) 또한, 정부 후원의 국내외 문화행사가 기획되어 국제 대사관, 부인회 초청 문화행사와 자선 패션쇼가 개최되고 1968년 9월 9일에는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에서 『벨트의 퍼레이드』가 열려 의복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부문까지도 지원이 확대된다(Park 2022; “The style”, 1968).

현대적 의생활의 장려로 디자이너들의 데뷔가 증가하고 일반인들의 양재 교육이 확산되며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제1세대 디자이너 주축의 국내 패션전문학원과 연구소가 늘어난 것도 1960년대이다. 박순기의 서라벌양재전문학원은 『모-드』 복장연구 잡지를 발행하고 학생의 작품을 게재하며 신진디자이너들의 역량을 알린다(“Suit style,”, 1960). 반면, 명석축자(明石祝子)의 오리엔탈양재학원은 핀·워크와 스포티한 바이어스 재단, 모자양재법 등을 국내에 선보여 주목받는다(Myeong-seock-chuk-ja, 1962; “Pin work”, 1965; “Sporty bias”, 1966). 더불어, 최경자의 국제복장학원은 일본 문화복장학원과 미국 FIT (Fashion Institute Technology)와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복장학원 졸업생들의 해외 유학을 주선한다(Choi, 1999). 이와는 다르게, 이종천의 중앙데자인연구소는 스타일화 기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담당하며 후학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디자이너의 재교육과 자문을 담당한다(Park, 2020b; Park, 2022). 또한, 서수연의 아리사복식연구소는 빠리·콜렉숀 분석, 우리나라 여성 복식 세미나 개최, 옷차림에 대한 무료 강의를 진행하며 트렌드 전파와 일반인들의 양재교육을 위해 힘쓴다(“Dressmaking academic”, 1966; “Post”, 1967; “Successful clothing”, 1967). 더불어, 김요안나의 뉴스타일편물학원은 학원 주최의 편물 전시회와 편물 콩쿠르를 개최하며 편물의 장점을 알리고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편물 제품의 사례를 제시하여 주목받는다(“Knitting 「competition」”, 1962; Park 2022).

제1세대 디자이너는 노명자(노라노), 박순기, 최경자 등 소수의 디자이너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양재학원 혹은 양장점에서 양재 기술을 배워 디자이너로 데뷔하였으나 1960년대 데뷔한 제2세대 디자이너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에서 유학 후 귀국하여 디자이너로 데뷔한다. 토탈 패션시스템 교육 중심의 일본 교육 기관은 문화복장학원, 에꼴·장·디게(École Jean Digue), 살롱 드 사뽀(Salon de Chapeau) 등이며 입체재단, 고등재단, 모자 제작 등을 교육한다(Yoon, 1968). 오트 쿠튀르 시스템의 본거지인 프랑스에서는 에꼴 겔 라벤느(École de Labenne) 고등양재학원, 아까데미·드·꾸뛰·드·빠리(Académie de Couture, Paris) 등에서 디자이너들이 유학하였는데 이들은 프랑스 오트 쿠튀르 하우스 시스템 학습과 더불어 고급기성복 시장으로 전환되는 파리 패션계의 동향을 함께 경험한다(Park, 2022). 미국의 경우는 고급기성복 시스템 학습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데 FIT, Parsons Design School, 레이버그 스쿨

(Ladybug School) 등에서 디자이너들이 수학한다 (“Fashion season”, 1966; Yoon, 1969).

패션전문잡지『여원』,『여상』이 박치우(Gentlemen’s Quarter_GQ양복점)와 김봉남(앙드레양재실) 같은 신진 디자이너의 개인 패션쇼를 후원하거나 디자이너들의 단체 패션쇼를 후원하는 것도 1960년대의 특징이다. 또한, 패션쇼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김정수(이사벨라), 전애경(뷔엔나양장점), 조원자와 조원주(예쁘다양장점) 등의 디자이너들은『여원』,『여상』에 개인 화보와 광고를 게재하며 브랜드를 홍보한다(Park, 2022).

제1세대 디자이너 중에서는 이종천이 회화를 전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외의 디자이너들은 패션 혹은 양재를 공부하거나 양장점 견습 과정을 거쳐 데뷔한다. 하지만, 1960년대는 회화 및 조각 등 예술학 전공 디자이너와 사학, 문학, 인문학 전공 디자이너들이 출현하고 이들은 패션디자이너와 예술가적 활동을 병행하거나 매장을 복합문화의 공간으로 만들며 옷을 의복 자체가 아닌 문화 콘텐츠의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Ⅲ. 제1세대 디자이너에게 사사 받은 제2세대 디자이너

1. 이종천의 중앙데자인연구소,「살롱 드 모드」 출신 디자이너; 진태옥, 이미원

최초의 패션칼럼니스트이자 정확한 컬렉션드로잉으로 명동 디자이너들의 스승으로 인정받은 중앙데자인연구소 이종천에게 사사 받은 제2세대 디자이너는 진태옥과 이미원이다. 진태옥은 우연히 들린 을지로「House of Nora Noh_노라노의 집」에서 일본 잡지에 소개된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 1883-1971)의 칼럼을 읽은 것을 계기로 패션디자이너에 관심을 가진다(Lee, 1997)(Figure 12). 이후 진태옥은 1961년 디자이너 이종천의 명동 중앙데자인연구소에서 1년간 디자인을 공부하고, 1965년 이화여자대학교 앞에「디 쉐네양장점」을 오픈한다(Lee, 1997). 이화여자대학교 옛 빠리다방 1층에 위치한「디 쉐네양장점」에서 진태옥은 세련되고 깔끔한 도시적인 양장을 선보이며 입지를 다지고, 3년 후 명동으로 입성하여「프랑소와의상실」을 오픈하며 주류 디자이너에 포함된다(Lee, 1997). 젊은 감각과 실용성을 중시한 진태옥은 리버서블 디자인을 주력 상품으로 선보인다.

이화여자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한 이미원은 오리엔탈양재학원에서 양재를 배운 후「살롱 드 모드」이종천에게 디자인 실무를 사사 받으며 패션계에 입문한다(“New face”, 1966; “Youth designer,”, 1966)(Figure 19). 1966년 일본, 불란서, 미국 등 해외 유학을 준비하던 이미원은 3월 12일『제1회 의상발표회』를 개최하고 1967년 동경 이토의복연구소 유학 후 1968년 명동에 양장점을 연다(“Interview, fashion designer”, 1992; “Mrs. Mi-won Lee,”, 1966). 이미원은 이종천의 컬렉션드로잉 스타일을 명확히 구현해낸 디자이너이다.

2. 국제복장학원 출신 디자이너; 한계석, 하영애, 김연, 김수선, 조영자, 소영희, 이용렬

1951년 청주여자사범대학을 졸업한 한계석은 1961년 국제복장학원 연구과에 입학한다(Choi, 1990)(Figure 8). 스승 최경자는 한계석이 항상 오래도록 학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고 성품도 좋아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노력의 결실로 장학금을 받아 과정을 마쳤다고 설명한다(Choi, 1990). 1962년 연구과를 졸업한 한계석은 1963년 3월 개최된『제1회 신인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2위를 수상하고, 같은 해「로라 살롱」을 오픈하며 디자이너로 데뷔한다(“Great colors”, 1963; Han, 1963). 또

한, 한계석은 1964년부터 국제복장학원 강사로 활동한다. 특히, 한계석은 대중들이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 제작 방법을 공개하며 의생활 개선에 힘쓴다.

「샤누아르양장점」은 국제복장학원 출신 하영애, 김연, 김수선이 1965년 3월 반도·조선호텔 아케이드 내에 함께 창업한 양장점이다(Ha, 1965; “Kook-je costume”, 1965a; “Kook-je costume”, 1965b). 하지만, 이들 중 김연과 김수선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하영애의 행보만이 보인다. 하영애는 1965년 1월 국제복장학원 연구과를 졸업하고 국제복장센터 디자이너로 활동한 후 「샤누아르양장점」을 공동 운영한다(Ha, 1965; “Kook-je costume”, 1965a; “Kook-je costume”, 1965b)(Figure 13). 「샤누아르양장점」은 양장 생활의 아카데믹한 탐구와 오피스 레이디를 위한 디자인을 제시한다. 이후 1971년부터 1972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아담·슈티에게 사사 받고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수를 받은 하영애는 귀국하여 충무로에 단독으로 「로빼의상실」을 오픈한다(“Young-ae Ha’s”, 1974).

조영자는 1961년 숭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국제복장학원 연구과를 수료 후 1967년 명동에 「트로아조」를 개업한다(Choi, 1990)(Figure 23). 조영자의 첫 컬렉션은 1968년 9월 21일 하오 2시 세종호텔 해금강 홀에서 개최되는데 겨울 의상 32점을 선보인 이 컬렉션에서는 실용적인 옷보다 예술성을 중시한 이브닝웨어 작품이 발표된다(“A unique”, 1968; Park, 2022). 한국 전통 모티프를 컬렉션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지만, 조영자는 흑과 백 외에는 모두 프린트가 없는 은은한 중간색을 사용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시도한다(“A unique”, 1968; “Troa Jo”, 1968). 조영자는 한국 전통을 재해석한 예술적 디자인과 실용적 디자인을 병행한다.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와 국제복장학원을 졸업한 소영희는 1965년 6월 12일 반도호텔 다이나스티·룸에서 개최된 『제2회 전국디자인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디자이너로 데뷔한다(“Best trend,”, 1965; “What did”, 1965)(Figure 25). 소영희는 안팎을 마음대로 뒤집어 입을 수 있고 요크와 모자 뒷 끝, 바클 등을 삼각형으로 통일된 형태의 레인코트를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주목받는다(“Best trend,”, 1965). 이후 소영희는 1968년 개인 양장점 「석란의 집」을 오픈하고 같은 해 6월 7일 신문회관 3층 강당에서 하오 2시와 4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첫 『石蘭의상발표회』를 개최하며 데뷔한다(“Seoknan(orchid blooming”, 1968). 소영희의 디자인은 절제된 커팅과 세련된 컬러 코디네이션이 특징이다.

1950년대 말 이용렬은 동국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국제복장학원에 입학한다(Choi, 1990)(Figure 7). 1960년 국제복장학원 연구과를 졸업한 이용렬은 1962년 서울 시청 앞에 「SALON·20·ANS_싸롱 뺑땅」을 오픈하고, 1968년 첫 패션쇼를 개최하기 전까지 약 7년 동안 20대를 타깃으로 작품을 발표하며 실력을 인정받는다(“Male designer”, 1968).

3. 국내에서 수학 후 해외 유학을 선택한 디자이너; 박윤정, 박문자

박윤정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의류학을 전공하고 「노라노의 집」에서 디자이너 노라노에게 사사 받아 패션계에 데뷔한다(“Women’s front”, 1960)(Figure 14). 이후 박윤정은 1964년 뉴욕 메이어·스쿨·오브·패숀에서 입체디자인을 공부하고 1965년 5월 귀국하여 서울 충무로에 「미스박 테일러」를 오픈한다(“11 costume”, 1967). 양장점 오픈 2년 후인 1967년 3월 24일 박윤정은 첫 패션쇼를 개최하고, 뉴욕에 상주하는 아리랑예술단의 무대의상을 제작한다(“Practical clothes,”, 1967; “11 costume”, 1967). 박윤정은 실용적으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다양한 아이템을 제안한다.

박문자는 1963년 국제복장학원 연구과 졸업 직후 3월에 개최된 『제1회 신인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1

위를 수상하며 디자이너로 데뷔한다(“Great colors”, 1963; “Ms. Mun-ja”, 1967)(Figure 20). 이후, 1965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년 동안 입체재단과 의상 색채학을 공부한 박문자는 1966년 6월 귀국해 「모드·살롱」을 오픈하며 입체재단으로만 디자인한다는 살롱 운영 원칙을 세운다(“Ms. Mun-ja”, 1967). 박문자는 입체재단으로 구축된 한국 여성의 인체에 맞는 양장을 탐구한다.

Ⅳ. 예술학 및 인문학 전공 패션디자이너

1. 예술학 전공 디자이너; 이병복, 도재은, 안성공

이병복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 후 프랑스로 이주하여 아까데미·드·꾸쁘·드·빠리에 입학하여 6개월간 수학한다(“Byung-bock Lee”, 1960; Park, 2022)(Figure 6). 또한, 이병복은 쏠본느(La Sorbonne)의 불란서어 교수양성과를 졸업하고 ‘아까데미·뒤·훼(Académie D’ Féu)’에서 조각을 연구하며 동회원이 된다(“Byung-bock Lee”, 1960). 이병복은 한국에서 패션디자이너가 아닌 조각가로 먼저 소개된다. 1960년 6월 4일 귀국한 이병복은 자택에 「네오 살롱」을 오픈하고 12월 17일 첫 번째 패션쇼를 개최하며 디자이너로 데뷔한다(“Byung-bock Lee”, 1960; “Painter Ok-yeon”, 1960; “11 costume”, 1967). 이병복은 “보통 옷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마는 간혹 발표회 같은 게 있어서 온 정성을 기울여 지어 놓은 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표가 끝나면 뜯어 버리곤 하지요. 간혹 손님들 가운데에는 그걸 사겠다고 값을 따지고 깎고 흥정을 하려고 들거든요. 저는 그걸 못합니다.”라고 자신의 디자인철학을 설명한다(“Designer involved”, 1968). ‘첨단을 걷는 여인의 대표’로 불리며 국내에서 패션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린 이병복은 ‘아까데미·뒤·훼’의 회원으로 지속해서 활동하며 조각가의 꿈을 잊지 않고, 1966년에는 극단『자유극장』을 창설하여 무대 연출과 의상 영역으로 예술적 역량을 확장한다(“A wide”, 1962; “Founding of”, 1966). 이병복은 패션디자인, 조각,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은 종합 예술가이다.

해방 전 일본 음우양재학원을 졸업한 도재은은 6.25 전쟁 피난기 대구에서 참모 부인들에게 양재 특강을 한 것을 계기로 대중을 위한 양재 교육을 시작한다(Heo, 1995a; “Mrs. Jae-eun”, 1966)(Figure 11). 이후, 1953년 미국 캔사스주립미술대학을 졸업한 도재은은 1961년 국립예술아카데미에서 의상디자인 수학 후 카톨릭대학의 미술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다(“Mode salon”, 1966; “Mrs. Jae-eun”, 1966; “『The dream”, 1990). 1964년 한국에 귀국한 도재은은 수도여자사범대학교(현. 세종대학교), 성심여자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1966년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조교수로 부임한다(“Fashion season”, 1966; “Mode salon”, 1966). 또한, 장충초등학교 옆 신당동 자택에 「도재은 쌀롱」을 운영하며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한다(“Mode salon”, 1966).『여원』1966년 4월호는 ‘자기류(自己流)의 실루엣이나 라인을 간직하고 있는 디자이너를 꼽기 힘든 것이 우리 의상계의 현실이지만, 도재은 여사의 옷은 어디서나 곧 구별해낼 수 있다’고 평가한다(“Mode salon”, 1966). 도재은은 드라마틱한 컷팅으로 선의 미를 읽어낸 교육자 겸 패션디자이너이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안성공은 국제복장학원 연구과를 졸업하고 「ELYSÈE DRESS MAKER_엘리제양장점」에서 1년간 근무한 후 1966년 첫 컬렉션을 개최하며 패션계에 이름을 알린다(“Kook-je costume”, 1966; Park, 2022; “Seong-gong Ahn’s”, 1966)(Figure 18). 「안 모드 살롱」 관련 기사는 1970년대 매체 자료에 남아있으나 살롱 오픈 시기에 관

련된 자료는 부재하고 1966년 안성공이 첫 패션쇼를 개최하고 1963년 10월 22일 양금철이 개업한 「ELYSÈE DRESS MAKER_엘리제양장점」의 개점할 때부터 1년 동안 활동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1960년대 중반 살롱이 오픈된 것으로 추정된다(Ahn, 1970; “Hall of”, 1963; “Opening guide”, 1963; Park, 2022). 안성공은 ‘동양의 선(線)’이라는 주제로 고가(古家)의 건축 양식과 한복의 선에서 영감을 받아 구라파 양장의 입체적인 곡선에 한복의 평면적인 직선을 융합하고, 기와지붕, 저고리 도련 등에서 보이는 특유의 동양적 곡선을 액센트로 강조하여 컬렉션 라인을 전개한다(Ahn, 1966).

2. 인문학 전공 디자이너; 지미 리, 잭키 성

사학을 전공한 「그래머양장점」의 지미 리는 타고난 집중력으로 교양적 소양을 작품에 담아내며 1960년대 중반 신예 남성 디자이너로 이목을 끈다(“New face”, 1966)(Figure 21). 지미 리가 패션계에서 주목받은 계기는 2-3년 이내에 작품 활동을 하는 복식 디자이너들 중 신인과 접촉이 많은 중견 이상 디자이너들과 신문사들의 여성란을 담당 기자 20명에게 추천을 받아 진행된 신인 디자이너 선정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이다(“Faces that”, 1966). 또한, 지미 리는 1960년대에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경기양재학원 강사로 활동한다(“New face”, 1966). 인문학적 소양을 옷에 담기 위해 노력한 지미 리의 열정은 잡지에 기고한 칼럼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1967년 『여원』 1월호에 『流行을 따르는 일에 대하여』에서 지미 리는 논어의 말인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食者 未足與議(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선비의 도에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히 하는 자는 아직 더불어 의논할 사람이 못된다)”를 인용하여 유교적 정신이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사회적 인식을 안타까워하고 ‘멋’이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입는 사람의 교양과 센스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밝힌다(Lee, 1967). 지미 리는 인문학적 콘텐츠를 작품에 담아낸 디자인 철학자이다.

국문학을 전공한 잭키 성은 패션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껴 1960년대 중반 용산구 갈월동 59 용중 입구에 「잭키 싸롱」을 오픈한다(“Jackie salon”, 1967; Sung, 1967)(Figure 24). 잭키 성은 숙녀 양장이란 신사 양장과 달리 해마다 유행이 변하고 일정하게 고정된 스타일 없이 한 사람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디자인이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며, 양장은 한 벌의 옷으로 완성된 제품은 물론 디자인·스케치만으로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고 여성복의 속성과 디자인의 예술성을 설명한다(Sung, 1967). 잭키 성은 고객을 존중한 예술적 디자인을 구현한다.

Ⅴ. 1960년대 한국패션의 환경이 반영된 디자이너들의 행보

1. 고급기성복 디자이너; 김정수, 한희도, 윤영섭, 윤복희

김정수는 1963년 9월 10일 미도파백화점 3층에 고급 기성복점 「이사벨라」를 오픈한 것이 매체 자료에서 확인된다(“News”, 1963; Park, 2022)(Figure 9). 하지만, 1962년 11월 『여상』 기고문을 살펴보면 김정수는 이미 양장점 「이사벨라」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다(Kim, 1962; “News”, 1963). 김정수는 1960년대 초 한국에서의 기성복에 대한 인식이 ‘싸구려의 대명사’, ‘값싸고 너절하고 곧 입을 수 없게 되는 옷’, ‘새로운 모-드라든가 센스와는 달리 약간 크고 적고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아무 관계없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Kim, 1963). 이와 달리, 「이사벨라」의 디자인은 ‘오-더(注文)한 옷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이쎈

스', '고급바스질', '최신유행의감'을 바탕으로 한 프레타포르테라고 강조한다(Kim, 1963).

한희도는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15 해방 직후 무궁화 양재학원에 입학해 본과와 연구과를 졸업한다(Han, 1963). 이후 한희도는 미국과 불란서의 패션 회사에서 일하며 해외 패션시스템을 습득할 기회를 얻고, 1958년 귀국 후 한국, 미국, 파리에서 배운 양장 경험을 종합해 8월 명동에 「보그양장점」을 개업한다(Han, 1963)(Figure 5). 한희도는 1960년대 초 이미 기성복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1969년 기성복 전문 브랜드 「Han」을 론칭한다(Han, 1963; Han, 1964).

윤영섭은 대학을 중퇴하고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의 FIT, 파슨스 디자인 스쿨(Parson's Design School), 5번가의 모델링 스쿨에서 디자인과 패턴을 공부한다(Yoon, 1969)(Figure 27). 기성복 회사 버쉬 드레스 하우스(Bersoui Dress House)의 쇼우룸 모델로 출발하여 견본 재단사, 보조 디자이너를 거쳐 고급기성복 회사인 맘젤(Mamselle Dress Inc.)의 디자이너로 5년간 근무한 후 윤영섭은 1969년 자신의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귀국한다(Yoon, 1969). 1969년 봄 기성복 전문 부티크 「윤스팻션살롱」을 오픈한 윤영섭은 기능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에 능숙한 색채 배합의 테크닉 그리고 미국식 입체재단과 국내 재봉술을 융합하여 구축한 완벽한 바느질 실력으로 앞세워 주목받는다(Yoon, 1969).

뉴욕에서 7년간 의상디자인을 공부하며 실력을 쌓은 윤복희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전속계약 제안을 계기로 1969년 귀국하여 백화점 내에 「기성복 전문 특별코너」를 오픈하고 같은 해 11월 신세계백화점에서 『귀국 패션쇼』를 개최한다. 1969년 11월 8일 하오 3시와 11월 12일에 개최된 윤복희의 패션쇼에는 세계 기성복 조류에 맞춘 대중적이면서도 하이패션의 감각을 살린 63점이 발표된다("Bock-hee Yoon,", 1969; "Circumstance of", 1969; Park, 2022).

2. 라이프스타일을 탐구하는 프랑스식 살롱 문화의 본거지 구축; 김정애, 김기택, 최광호, 이상덕, 박의상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1959년 신세계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며 화가로 데뷔한 김정애는 1962년 반도 화랑에서 나무, 가죽, 자연물을 소재로 한 액세서리 전시회를 열며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한다("Bi-ham Kim", 1970). 이후, 1968년에 의상발표회를 개최하고 「비함살롱」을 오픈한 김정애는 옷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곧 「비함살롱」은 소설가 정연희, 화가 박근자, 신문기자 정광모, 소프라노 이경숙, 연극배우 오현주 등 문화계 여류 인사들의 아지트가 된다("Women's salon", 1969)(Figure 26). 당시 문화계 인사들은 김정애를 '비함'이라 불렀는데, 김정애는 1970년대에 '김비함(金毘含)'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Bi-ham Kim", 1970; "Women's salon,", 1969).

경복고등학교 38회 졸업생 동문인 김기택, 최광호, 이상덕, 박의상은 시인과 연극배우들이다("Visit 「Pinocchio」", 1966)(Figure 22). 이들은 개인의 소양과 재능을 종합할 기회를 탐색하고, 이후 스웨터와 스카프 전문점 「삐노끼오의류점」을 1966년 1월 명동성당 앞에 오픈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 공동체를 만든다("Visit 「Pinocchio」", 1966). 「삐노끼오의류점」은 「현대시 동인회」 연락소를 겸하여 의류제품과 더불어 우수한 작가들의 개인 시집을 판매하여 현대시 보급에 앞장서고, 화가들이 직접 그린 생일 카드, 크리스마스카드, 소형액자 작품을 판매하고 연극회, 무용발표회,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Visit 「Pinocchio」", 1966). 이들은 스웨터나 그 밖의 의류제품들의 주요 고객들이 외국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품질이 보증되는 창의적인 디자인의 스웨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큰

공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원하는 스타일을 직접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Visit 「Pinocchio」”, 1966). 「삐노끼오의류점」의 디자인은 각 미술대학 학생들의 창작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작품에 적용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젊은 감각이 특징이며 스카프, 가죽장갑, 양말 등의 소품과 저어지를 활용한 제품을 함께 선보임으로써 주요 고객층인 여대생들과 젊은 BG(Business Girl)들의 호응을 얻는다(“Visit 「Pinocchio」”, 1966).

3. 디자인을 전담하는 유럽식 스타일리스트 시스템 수용; 윤영숙, 조원자, 조원주, 서이순

「메리노양장점」은 1960년대 초 윤영숙이 명동에서 운영한 양장점으로 1968년 한영수,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사포양장점」에서 활동하다 1968년 「메리노양장점」으로 이직한 이은주와 1969년 배규정이 소속 디자이너로 확인된다(“Be careful”, 1968; “Emergence of”, 1968; “Market economy”, 1969; “Waste basket”, 1963). 이들 중 이은주는 1964년 건국대학교에서 의상과를 졸업하고 오리엔탈양재학원에서 대학 시절 부족했던 가봉을 학습한다(“Emergence of”, 1968)(Figure 10). 특히, 핑크와 브라운 계통을 주로 사용하여 주목받은 이은주는 손님에게 스타일화를 직접 그려가며 알맞은 디자인을 권하는 것으로 인지도를 높인다(“Emergence of”, 1968).

1950년대에 오픈한 조원자와 조원주의 「예쁘다양장점」은 성인 옷을 디자인하였으나 치열해지는 양정점의 경쟁 속에서 아동복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유명해진다(Park, 2020b). 조원자는 여성 디자이너, 조원주는 남성 디자이너이고 가족관계로 추정되며 이들 중 조원주가 브랜드의 디자인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이 확인된다(Figure 4).

1965년 명동 입구에 서이순이 문을 연 「루크양장점」에는 윤순모, 박정일이 전속 디자이너로 활동한다(Heo, 1995b). 국제복장학원 1기 졸업생이자 가수 양희은과 탤런트 양희경의 어머니 윤순모는 「루크양장점」 오픈 당시 디자이너로 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Heo, 1995b; “Kook-je costume”, 1965b; Yoo, 1999). 반면,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중퇴하고 국제복장학원을 졸업한 박정일은 1968년 국제복장학원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루크양장점」의 디자이너로 활동한다(Choi, 1968)(Figure 16).

4. 토탈 패션시스템 도입; 조경희, 윤정옥

숙명여전국(淑明女專國, 숙명여자전문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조경희는 의상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며 국제복장학원에 입학하여 연구과 1기 졸업생 출신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배움에 한계를 느껴 1964년 일본 문화복장학원으로 유학을 떠난다(Park, 2022; “Popular for”, 1965; “11 costume”, 1967)(Figure 15). 일본 유학 시절 격식 있는 의복의 완성은 모자라는 것을 인식한 조경희는 모자 디자인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동경 에꼴·장·디게에서 모자를 연구한다(“11 costume”, 1967). 1년의 연수 후 1965년 2월 귀국한 조경희는 3월 6일 반도·조선 아케이드에 「살롱 조세핀」을 오픈한다(“Popular for”, 1965). 1967년 문화복장학원 선정 구라파 연수 디자이너 멤버 30인에 발탁된 조경희는 7월 15일부터 3개월간 독일, 스페인, 이태리, 노르웨이 등 10여 개국을 순방하며 각 나라의 민속 의상과 복식을 시찰한다(“Impressed by”, 1967). 연수 후 조경희는 파리 피에르 가르뎅(Pierre Cardin, 1822-2020) 아틀리에의 문하생으로 1개월간 연수할 기회를 얻어 주문복 제작 방법과 패션쇼 준비 과정 등을 직접 경험한다(“Impressed by”, 1967).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기계화된 기성복 공장을 견학하고 귀국 후 조경희는 1968년 2월 새로 생긴 파고다 아케이드 347호에 맞춤과 가봉을 생략하고 즉석에서 사입을 수 있는 기성복 전문점 「부틱 조세핀」을 오

픈하여 자신의 레이블을 분리하며 사업을 확장한다(“Cardin Design”, 1967; “Post”, 1968).

윤정옥은 일본 문화복장학원에서 입체재단, 고등재단, 모자 제작 등을 연구하고 동경 살롱 드 샤뽀에서 모자를 공부한 후 해외의 복식 트렌드를 경험하기 위해 구라파를 여행하면서 모자 디자인의 매력에 빠져든다(“Mode salon”, 1966; Yoon, 1968)(Figure 17). 특히, 윤정옥은 여행 중 다양한 모자를 수집하고 특수한 모자 재료를 구매하여 평범한 모자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폼하며 모자 제작법을 연구한다(Yoon, 1968). 1964년 10월 전시회를 통해 패션계에 이미 이름을 알린 윤정옥은 1965년 4월 소공동 태양빌딩 301호에 「Yoon’s Mode Saron_윤스 모드 살롱」을 오픈하고, 같은 해 여름 관심 있던 소재인 가죽의 본질을 학습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가죽공장에서 한 달간 가죽 제조와 염색법을 견습한다(“Mode salon”, 1966). 윤정옥은 모자와 양장의 매치를 통한 토탈 코디네이션을 완성한다.

Ⅵ. 매체 자료 분석에서 추출된 기타 디자이너들의 행보와 한국 패션사적 사실

1960년대는 다양한 이력을 지닌 디자이너들이 출현하였는데 양장점 개점 후 유학길에 올라 다시 복귀한 디자이너로는 김복환, 백희득이 있다. 김복환은 시카고 레이버그 스쿨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아드레인 타빈 양장회사에서 근무한 후 귀국해 1965년 말 명동에 「세실양장점」을 오픈한다(“Fashion season”, 1966)(Figure 28). 10여 년 동안 양장계에 활동한 베테랑급 디자이너이지만 김복환은 유학 이후 대담한 컬러의 조합과 이질적인 소재의 매치를 중시한 뉴페이스 디자이너로 평가받는다(“Fashion season”, 1966).

백희득은 1937년 서울 福增外男양재연구소를 졸업하고 20년간 가정주부로 생활하다 1956년 종로 2가 고려당 옆에 아동복 전문점 「파랑새양장점」을 개업한다(Kim, 2015; “11 costume”, 1967)(Figure 29). 「파랑새양장점」의 수준 높은 디자인과 바느질에 매혹된 고객층이 생겨났지만, 백희득은 몸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체재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59년 파리 에꼴 겔 라벤느 고등양재학원으로 유학을 떠난다(Kim, 2015; “11 costume”, 1967). 당시 독일에서 현대음악을 공부하던 동생 백남준의 도움으로 파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백희득은 1년간 입체재단을 수학 후 귀국하여 1960년 명동 세종호텔 후문에 「크리스티나양장점」을 개업하며 여성복 디자이너로 데뷔한다(Kim, 2015; “11 costume”, 1967). 최경자 중심의 기존 한국 디자이너 그룹과는 거리를 두며 작품의 창조에만 집중한 백희득은 자신이 모든 옷을 직접 디자인, 재단하고 일류 재봉사와 함께 봉제 방법을 연구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오트 쿠튀르 시스템을 구축하고 6회에 걸쳐 프랑스식 의상발표회를 개최하며 신예 디자이너에 이름을 올린다(Kim, 2015; “11 costume”, 1967).

남성 디자이너들의 활약 역시 두드러지는데 여성복에는 김봉남, 남성복에는 박치우가 주목받는다. 또한, 김선용, 김청, 박호삼, 신봉래, 이석, 임원철, 최태섭은 「라르깡시엘」 그룹으로 활동한다. 이들 중 김봉남은 1962년 국제복장학원 1년 과정의 연구과를 졸업 후 「앙드레양재실」을 오픈하고 『여상』의 후원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패션쇼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디자이너 활동을 이어간다(“11 costume”, 1967). 김봉남은 1964년 9월 동명빌딩 맞은편으로 양장점을 확장 이전하며 「살롱 앙드레」라는 명으로 재오픈하고 기존의 반도호텔에서 개최하던 패션쇼를 살롱 쇼로 전환한다(“Charming, even”, 1962; “Designer·Andre”, 1964). 김봉남은 선행연구(Park, 2022)에서 김복남으로 표기 오류가 나타나 수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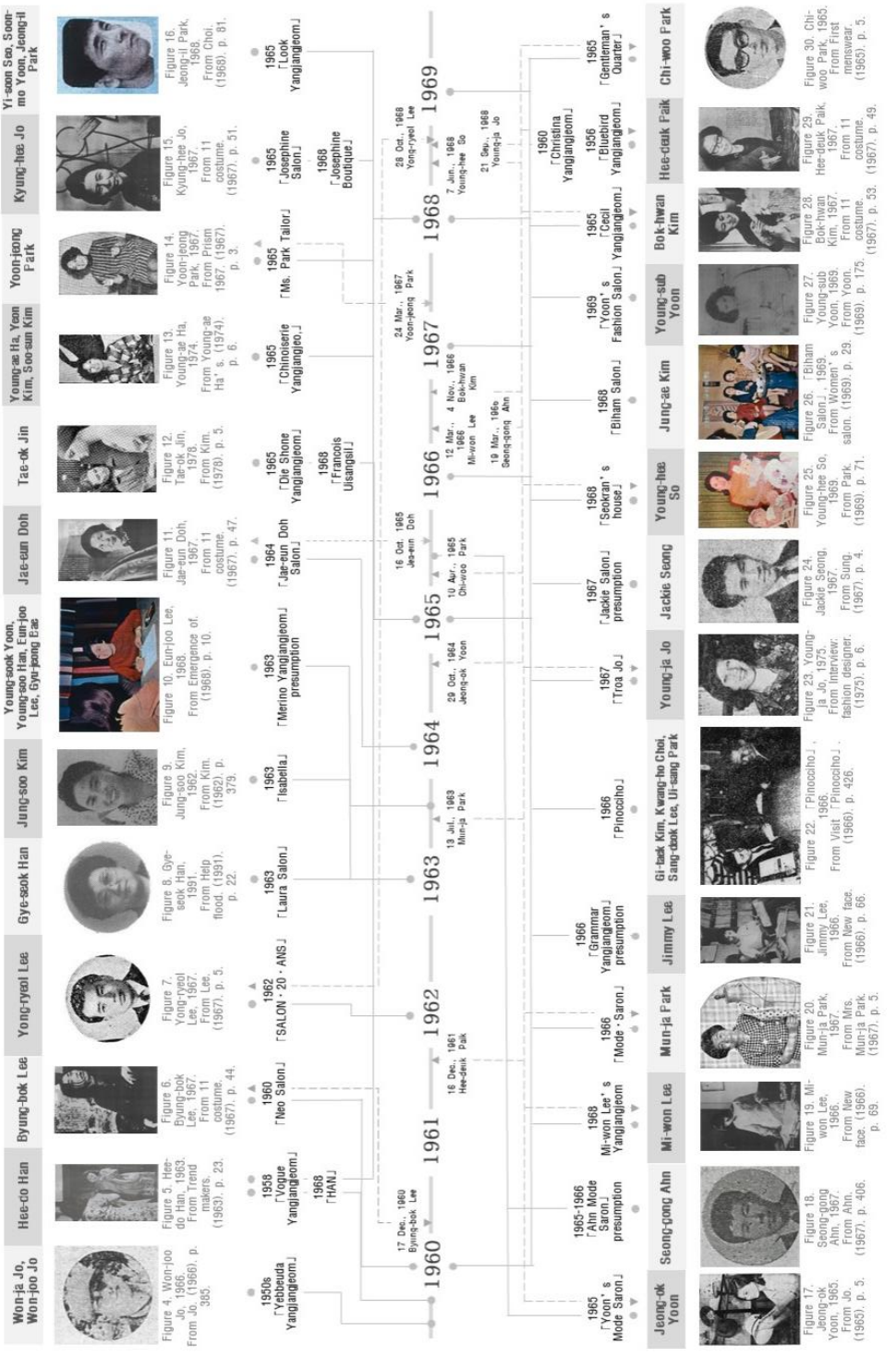

Figure 31. Analysis the time of boutique openings and the first collections by Korean fashion designers in the 1960s.

박치우는 1965년 충무로 1가 23에 「Gentlemen's Quarter_GQ양복점」을 오픈하고 4월 10일 『조선일보』의 후원으로 반도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제1회 남성복장발표회』를 개최하며 패션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킨다(“First menswear”, 1965; Park, 2022)(Figure 30). 복장발표회에서 자신을 디자이너가 아니라 ‘커터’라고 명명한 박치우는 여성 옷은 디자인하는 것이지만, 남성 의복이란 전형이 있어 그 기본형에 시대적인 감각을 불어넣기만 하므로 창작하기보다 원형을 그리고(드로잉) 재단하는 것(커팅)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First menswear”, 1965).

「실루엣의상실」 김선용, 「김청의상실」 김청, 「그린양장점」 박호삼, 「신봉래의상실」 신봉래, 경기양재학원 강사 이석, 「사포양장점」 임원철, 「엘레깡스의상실」 최태섭으로 구성된 7인의 남성 디자이너 그룹 「라르깡시엘」이 1968년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합동 패션쇼를 개최한다(“Bravo!”, 1968; Park, 2022). 1968년 3월 21일 서울 세종호텔, 27일 대구 고식장, 28일 부산 국제극장, 29일 진해 해군장교구락부, 31일 광주 관광호텔의 전국 5개 주요 도시를 투어하며 개최된 「라르깡시엘」의 합동 패션쇼는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가 주최하고 경남모직의 1968년도 신제품 ‘K·앙고라텍스’의 후원을 받아 테토론, 울 등 국산 복지를 활용한 코트, 원피스, 이브닝드레스 등 43점의 작품이 발표된다(“Bravo!”, 1968; “Presentation of”, 1968; “Seven male”, 1968). 컬렉션은 한국적인 선과 색을 강조하고 새로운 카팅, 햄라인의 변화 등으로 젊은 디자이너들의 의욕적인 시도를 담아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Seven male”, 1968).

이외에도 『여상』 화보를 통해 스타일을 제안하고 양장점을 홍보한 전애경은 1953년 숙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에 진학 후 디자인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종로 1가 21번지에 「뷔엔나양장점」을 오픈한다(Jeon, 1964; “Women's suit”, 1964). 「뷔엔나양장점」의 개점 시기는 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나 『여상』의 1963년 3월호 화보 『쥬니어 페이지』에 전애경이 하프·코트와 조끼 스카트, 조끼 스랙스 작품을 발표한 것이 확인된다(“Junior page”, 1963).

「신생활복장운동」 참여 디자이너 그룹에는 「아담양장점」의 오예종, 「뉴스타일양장점」의 김필중, 「노블양장점」의 오경환, 「마이애미양장점」의 박영철, 「파리양장점」의 오한근, 「미도파양장점」의 류생수, 「미라노양장점」의 김형구, 뉴스타일편물학원의 김요안나이었으며 이들은 「신생활복장운동」 패션쇼와 이벤트 행사를 통해 제품을 발표하고 양장점을 홍보한다(Park, 2022).

1960년대 양장점 분위기에 대한 설명은 김봉남과 김정애의 자료에서 확인되는데, 1963년 『여상』 8월호에는 「앙드레양재실」이 “옷감을 일일이 전시하지 않고 차곡차곡 개켜 얹어놓은 품이라든지, 들어오는 손님에게 옷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부터 불란서의 고급 「드레스·메이카스」를 연상시킨다”고 매장의 환경이 기술되어있다(“Life culture”, 1963, p. 164). 또한, 1969년 『여원』 4월호 기사에는 「비함살롱」의 분위기가 서술되어 있는데, 북창동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하고 아늑한 실내엔 옷감과 팻션 잡지가 한 권도 눈에 띄지 않아 보편적인 양장점 같지 않다고 설명한다(“Women's salon,”, 1969). 김정애는 「비함살롱」에서 여류들과 함께 옷 입는 것, 먹고 마시는 일, 그림과 음악 얘기 등 어떻게 살 것인가로 집약되는 주제를 논한다고 밝힌다(“Women's salon,”, 1969).

Ⅶ. 결 론

매체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48명의 1960년대 데뷔 디자이너와 40개의 양장점 혹은 브랜드가 추출되었다(Figure 31).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세대 디자이너에게 사사 받아 데

뷔한 디자이너는 진태옥, 이미원, 한계석, 조영자, 소영희, 박문자, 박윤정이었다. 「디 쉐네양장점」의 진태옥과 「양장점명 미상」의 이미원은 중앙데자인연구소 원장 이종천이 운영한 「살롱 드 모드」 출신으로 이들의 컬렉션드로잉은 이종천의 영향이 드러난다. 반면, 최경자가 운영한 국제복장학원 출신은 「로라 살롱」의 한계석, 「샤누아르양장점」의 하영애, 김연, 김수선, 「트로아조」의 조영자, 「석란의 집」의 소영희, 「SALON·20·ANS_싸롱 뷍땅」의 이용렬이었고 이들은 국제복장학원 주최의 연구생 패션쇼를 통해 패션계에 입문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박윤정과 박문자는 제1세대 디자이너에게 사사 받고 해외 유학 후 브랜드를 오픈하는데 「미스 박 테일러」의 박윤정은 노라노의 「노라노의 집」에서 활동 후 뉴욕에서 그리고 「모드·살롱」의 박문자는 국제복장학원 연구과 졸업 후 일본에서 유학하였다. 예술학을 전공 후 데뷔한 디자이너는 「네오 살롱」의 이병복, 「도재은 쌀롱」의 도재은, 「안 모드 살롱」의 안성공이었으며, 인문학 전공 디자이너는 「그래머양장점」의 지미 리와 「잭키 싸롱」의 잭키 성이었다.

1960년대의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디자이너들의 행보는 고급기성복 디자이너 양장점, 라이프스타일을 탐구하는 프랑스식 살롱문화 구축, 디자인을 전담하는 유럽식 스타일리스트 시스템 수용, 토탈 패션시스템 도입으로 나타난다. 첫째, 양장점 오픈 시기부터 고급기성복 디자인을 출시한 디자이너는 「이사벨라」의 김정수, 「보그양장점, HAN」의 한희도, 「윤스팻션살롱」의 윤영섭, 「신세계백화점 기성복 전문 특별코너」의 윤복희가 있었다. 김정수는 한국식 고급기성복 개념을 정립하였고, 한희도는 맞춤복과 기성복 브랜드 분리를 통해 파리 하이패션 시스템을 수용하였다. 또한, 윤영섭은 미국식 입체재단과 국내의 평면 재단의 융합으로 디자이너 기성복과 상업기성복의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윤복희는 백화점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디자이너 기성복 시장에 진출하였다. 둘째, 라이프스타일을 탐구하는 프랑스식 살롱문화를 구축한 디자이너는 「비함살롱」의 김정애, 「삐노끼오의류점」의 김기택, 최광호, 이상덕, 박의상이었다. 화가, 시인, 연극배우 등 예술가 출신으로 패션계에 입문한 이 디자이너들은 프랑스식 복합문화 공간인 살롱의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고객들이 매장 방문을 통해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김정애는 살롱을 문화계 여류 인사들의 아지트로 만들며 예술가적 감성을 작품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트렌드 리더였으며, 반면 김기택, 최광호, 이상덕, 박의상은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패션과 예술의 관계성을 탐구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었다. 셋째, 디자인을 전담하는 유럽식 스타일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한 양장점은 윤영숙의 「메리노양장점」, 조원자, 조원주의 「예쁘다양장점」, 서이순의 「루크양장점」이었다. 「메리노양장점」의 윤영숙은 한영수, 이은주, 배규정을, 「루크양장점」의 서이순은 윤순모, 박정일을 디자인 담당 스타일리스트로 고용하였다. 또한, 「예쁘다양장점」은 조원주가 디자인을 전담하는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기가 많은 스타일리스트들은 스카우트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은주의 경우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사포양장점」에서 활동하다 1968년 「메리노양장점」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었다. 넷째, 토탈 패션시스템을 사업에 도입한 디자이너는 「살롱 조세핀, 부틱 조세핀」의 조경희와 「Yoon's Mode Saron_윤스 모드 살롱」의 윤정옥이었다. 조경희와 윤정옥은 옷뿐만 아니라 스타일에 맞는 모자를 디자인하여 착장을 완성시켰다. 추가적으로, 「세실양장점」의 김복환, 「파랑새양장점, 크리스티나양장점」의 백희득, 「앙드레양재실」의 김봉남, 「Gentlemen's Quarter_GQ 양복점」의 박치우, 「뷔엔나양장점」의 전애경, 「라 르깡시엘」 남성 디자이너 그룹, 「신생활복장운동」 참여 디자이너들이 이 시기 활동하였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는 국내·외의 패션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받은 디자이너들과 인문학, 회화, 조각, 연극 등 다양한 이력을 지닌 디자이너들이 출현하였다. 또한, 1950년대부터 활동한 제1세대 디자이너, 1960년대를 이끌어나간 제2세대 디자이너, 1970년대를 주도할 제3세대 디자이너가 함께 한국 근현대패션의 시스템을 정립한 시기였다. 본 고는 한국 근현대패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1960년대에 한국 패션디자이너들을 발굴한 기초연구로 후속연구로 1960년대 패션디자이너들의 컬렉션과 매체 화보 분석을 통해 이들의 행보와 사회적 환경의 관계를 심층 분석할 것이다.

References

A unique attempt at artistic sensibility. (1968, September 23). *Kyunghyang Shinmun*, p. 5.

A wide range of artists. (1962, January 6). *Chosun Ilbo,* p. 4.

Actresses who marched through the street on June 25, wearing a newly designed lifestyle wear. (1961, June 24). *Dong-A Ilbo*, p. 3.

Ahn, S. K. (1966, June). 오리엔탈 라인을 主題로 [On the theme of the oriental line]. *Yeowon*, p. 323.

Ahn, S. K. (1967, August). 보라와 황색의 교차로 [The intersection of purple and yellow]. *Yeowon*, p. 406.

Ahn, S. K. (1970, February 21). 높아진「의상수준」[Higher 「level of clothing」]. *Kyunghyang Shinmun*, p. 6.

Arko Arts Archive [AAA]. (2013). *Nora Noh 1928 ~ 2012 Korean Modern Art History: Research of the Oral Statement Series vol. 224*. Seoul: The Korean National Archives of Arts.

Be careful when you are choosing various. (1968, December 10). *Meail Business News*, p. 3.

Best trend,『rain coat』and『long·dress』. (1965, June 17). *Dong-A Ilbo*, p. 6.

Bi-ham Kim who opens a unique exhibition of works. (1970, May 19). *Kyunghyang Shinmun*, p. 5.

Bock-hee Yoon, ready to wear show. (1969, November 17). *Kyunghyang Shinmun*, p. 5.

Bravo! mode festival. (1968, May). *Yeowon*, p. 27.

Byung-bock Lee's fashion show; 17 at the Ban-do hotel at 4 pm. (1960, December 13). *Kyunghyang Shinmun*, p. 4.

Cardin Design Lab, which dominates the world's trends. (1967, November 16). *Dong-A Ilbo*, p. 6.

Charming, even in the ordinary; the fashion show of「Kook-je costume academy」. (1962, February 21). *Dong-A Ilbo*, p. 4.

Choi, K. J. (1968, September). 新人디자이너의 登場 [Emergence of new designer]. *Yeowon*, p. 81.

Choi, K. J. (1990). *패션과 함께한 나의 사랑* [My Love and Fashion]. Seoul: Kook-je Fashion Culture Publishing.

Choi, K. J. (1999). *최경자와 함께한 패션 70* [Seventy years of fashion]. Seoul: Institute of Kook-je Fashion Design Foundation.

Circumstance of department store. (1969, November 8). *Meail Business News*, p. 4.

Designer · Andre Kim; moved salon commemorative show. (1964, September 10). *Kyunghyang Shinmun*, p. 4.

Designer involved in the theater. (1968, March). *Yeowon*, pp. 234-239.

Dressmaking academic seminar. (1966, April 6). *Kyunghyang Shinmun*, p. 6.

Emergence of new designer ⑤ captivated by brown color. (1968, December). *Yeowon*, pp. 10-11.

Faces that make fashion; 5 new designers. (1966, September). *Yeowon*, p. 113.

Fashion season designer. (1966, October). *Yeowon*, pp. 336-337.

First menswear presentation. (1965, March 28). *Chosun Ilbo,* p. 5.

Founding of the free theater company. (1966, May 4). *Kyunghyang Shinmun*, p. 5.

Great colors · bold sensibility. (1963, April 24). *Chosun Ilbo,* p. 5.

Ha, Y. A. (1965, March). 예술의 경지에 [At the level of art]. *Yeosang*, pp. 209-210.

Hall of beauty, Elise!. (1963, October 25). *Kyunghyang Shinmun*, p. 8.

Han, G. S. (1963, July). 비취웨어 [Beach wear]. *Yeosang*, pp. 237-275.

Han, H. D. (1963, March). 個性美를 創造하는 디자이너 [Designer who creates individual beauty]. *Yeowon*, pp. 276-277.

Han, H. D. (1964, October). 休息없는 修練의 나날 [Days of training without rest]. *Yeosang*, pp. 194-195.

Han, S. (2012a). Americanization expressed in Korean fashion: Focused on 1950s~1980s Nora Noh fashio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4*(3), 195-204.

Han, S. (2012b). Fashion exhibition as fashion communication media: Focus on the 2012 Nora Noh La Vie en Rose exhibi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9), 966-978. doi:10.5850/JKSCT.2012.36.9.966

Help flood victims. (1991, August 29). *Dong-A Ilbo*, p. 22.

Heo, J. (1995a, March 15). 패션50년 (5)「노라노패션쇼」[50 years of fashion (5) 「Nora Noh fashion show」]. *Kyunghyang Shinmun*, p. 11.

Heo, J. (1995b, April 26). 패션50년 (8)「루크」양장점 [50 years of fashion (8) 「Look」 yangjangjeom]. *Kyunghyang*

Shinmun, p. 11.

Impressed by the serious art of thinking; Mrs. Josephine Jo trained at Cardin. (1967, November 1). *Kyunghyang Shinmun,* p. 4.

Interview; fashion designer Mrs. Troa·Jo. (1975, June 10). *Meail Business News*, p. 6.

Interview, fashion designer world; new chairman Mrs. Mi-won Lee. (1992, January 17). *Meail Business News*, p. 10.

Jackie salon. (1967, February). *Yeowon*, p. 80.

Jeon, A. G. (1964, April). 淑明女高 第一期生 [Sookmyung Girls' high school 1st class student]. *Yeosang*, pp. 42-43.

Jo, J. S. (1965, August 8). 서늘한 여름을 만드는 女人들 ⑥ 尹貞玉 씨와 여름모자 [Women who create a cool summer ⑥ Mrs. Jeong-ok Yoon and summer hats]. *Chosun Ilbo,* p. 5.

Jo, W. J. (1966, June). 애드바이스·룸 [Advice room]. *Yeosang*, pp. 358-387.

Junior page. (1963, March). *Yeosang*, pp. 266-271.

Kim, E. H. (1978, March 9). 봄女人 ③ 옷감은 피부‥‥값싸고 활동적인「봄」을‥‥ [Spring woman ③ fabric is skin ‥‥ cost-effective active clothes for spring]. *Chosun Ilbo,* p. 5.

Kim, G. O. (2015). 한번 만나고 싶었던 분, 백희득 [Hee-deuk Baek, the person I wanted to meet once]. In Kim, Y. K., Park, G. H., Soh, K. O., Lee, S. W., & Jung, B. Y. (Eds.), *황홀한 앨범; 옷으로 본 한국의 현대여성 1946-2015* [An enchanting album, Modern Korean women seen through cloths] (pp. 128-133). Seoul: Noonbit Publishing Co.

Kim, J. S. (1962, November). 신부가 되는 그날의 의상 [Clothes for the day you become a bride]. *Yeosang*, pp. 378-381.

Kim, J. S. (1963, October). 기성복은 싸구려의 대명사가 아니다 [Ready-made clothes are not synonymous with cheapness]. *Yeosang*, pp. 280-283.

Knitting「competition」. (1962, April 5). *Kyunghyang Shinmun*, p. 4.

Kook-je costume school. (1965a, January). *Yeowon*, p. 344.

Kook-je costume school. (1965b, April). *Yeowon*, p. 347.

Kook-je costume school. (1966, June). *Yeowon*, p. 371.

Lee, J. (1967, January). 流行을 따르는 일에 대하여 [About following the trend]. *Yeowon*, pp. 180-182.

Lee, M. K. (1997, November 24). 톱 디자이너 <9> 진태옥 자존심 강한 개척자 [Top designer <9> a proud pioneer, Tae-ok Jin]. *Chosun Ilbo,* p. 37.

Lee, S. R. (2015). *Study on Korean style fashion design factors in Choi, Gyungja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Lee, S. R., & Soh, H. O. (2016). Study on Korean style fashion design in Choi, Gyungja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2), 117-133. doi:10.7233/jksc.2016.66.2.117

Lee, Y. R. (1967, March 19). 젊음을强調 [Emphasize youth]. *Chosun Ilbo,* p. 5.

Life culture salon. (1963, August). *Yeosang*, p. 164.

Male designer Yong-ryeol Lee's first work presentation. (1968, December). *Yeowon*, p. 261.

Market economy. (1969, June 8). *Chosun Ilbo,* p. 4.

Mode salon tour ③. (1966, March). *Yeowon*, pp. 326-327.

Mode salon tour ④. (1966, April). *Yeowon*, pp. 320-321.

Mrs. Jae-eun Doh who plays 3 roles per person. (1966, November 9). *Kyunghyang Shinmun*, p. 6.

Mrs. Mi-won Lee, costume presentation. (1966, March 16). *Kyunghyang Shinmun*, p. 6.

Mrs. Mun-ja Park talks about draping. (1967, May 17). *Kyunghyang Shinmun*, p. 5.

Myeong-seock-chuk-ja. (1962, June 28). 여름철 모자 [Summer hat]. *Dong-A Ilbo*, p. 4.

New face of trend maker. (1966, September). *Yeowon*, pp. 65-67, 69, 71.

News. (1963, September 13). *Dong-A Ilbo*, p. 6.

Opening guide. (1963, October 22). *Kyunghyang Shinmun*, p. 3.

Painter Ok-yeon Kwon and his wife return to South Korea after 3 years in France. (1960, June 4). *Chosun Ilbo,* p. 4.

Park, H. S. (1969, August). 더위도 잊고 피곤도 잊고 - 나의 愛玩物 [Forget the heat and fatigue - my pet]. *Yeowon*, pp. 70-71.

Park, S. M. (2014a). An observation on mid to late twentieth century Korean fashion: Focus on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Nora No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4*(4), 52-75. doi:10.7233/jksc.2014.64.4.052

Park, S. M. (2014b). A study on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Nora Noh: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Nora Noh's fashion shows and designs from the 1950s to the 199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2), 89-109.

Park, S. M. (2016). A study on Nora Noh fashion and Korean modern fash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4), 89-107. doi:10.18652/2016.16.4.6

Park, S. M. (2017). A study on Nora Noh fashion and Korean modern fash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7*(2), 89-109. doi:10.18652/2017.17.2.6

Park, S. M. (2019). An observation on Kyung-ja Choi,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Focus on the activities from 1950s to 1970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69*(3), 119-140. doi:10.7233/jksc.2019.69.3.119

Park, S. M. (2020a). A comparative analysis of first-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s, Ms. Kyung-ja Choi and Ms. Nora No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0*(1), 80-103. doi:10.7233/jksc.2020.70.1.080

Park, S. M. (2020b). An observation on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s: Focusing on design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of Myeongdong Yang-jang-jeom(boutique) designers in the 195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0*(2), 73-97. doi:10.7233/jksc.2020.70.2.073

Park, S. M. (2022). An observation on 1960s Korean fash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materials: Focusing on design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of second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2*(6), 170-192. doi:10.7233/jksc.2022.72.6.170

Pin work exhibition. (1965, February 28). *Chosun Ilbo*, p. 5.

Popular for pheasant fur hats. (1965, March 7). *Chosun Ilbo,* p. 5.

Post. (1967, March 13). *Kyunghyang Shinmun*, p. 5.

Post. (1968, January 19). *Kyunghyang Shinmun*, p. 5.

Practical clothes, Yun-jung Park's costume presentation. (1967, March 25). *Kyunghyang Shinmun*, p. 8.

Presentation of 7 male designers. (1968, May). *Yeowon,* p. 272.

Prism 1967, the end of season conversation with newsmaker ⑨. (1967, December 12). *Chosun Ilbo,* p. 3.

Seoknan(orchid blooming on stone), costume exhibition. (1968, June 3). *Kyunghyang Shinmun*, p. 5.

Seong-gong Ahn's fashion show. (1966, March 23). *Kyunghyang Shinmun*, p. 6.

Seven male designers. (1968, March 18). *Kyunghyang Shinmun*, p. 5.

<Sporty bias cut>. (1966, February 27). *Chosun Ilbo*, p. 5.

Successful clothing style exhibition hosted by Arisa. (1967, October 14). *Kyunghyang Shinmun*, p. 5.

Suit style, sportswear, and nightgowns with modern beauty and practicality. (1960, March). *MODE*, pp. 23-29.

Sung, J. (1967, January 25). 商人의 소리 (10) 洋裝「재키」살롱 디자이너 재키 成(성) [Marchant's voice (10) women's suit, 「Jackie」 salon designer, Jackie Sung]. *Meail Business News*, p. 4.

『The dream of a painter』 who filled the place where her husband was. (1990, November 26). *Kyunghyang Shinmun*, p. 18.

The style of the belt. (1968, November). *Yeowon*, pp. 28-30.

Trend makers. (1963, October). *Yeowon*, pp. 17-18, 20-21, 23-24.

Troa Jo costume presentation. (1968, November). *Yeowon*, p. 204.

Yoo, I. K. (1999, August 11). 세월흘러도 '엄마손은 요술손' [Even as time passes, mom's hands are magic hands]. *Kyunghyang Shinmun*, p. 16.

Yoon, J. O. (1968, July). My collection ③ Hats [나의 컬렉션 ③ 모자] [My collection ③ hat]. *Yeowon*, pp. 72-73.

Yoon, Y. S. (1969, June). 맘젤會社의 作業과 修行 [Mamselle company's work and planning]. *Yeowon*, pp. 174-177.

Young-ae Ha's 「Lope Clothing room」. (1974, June 22). *Meail Business News*, p. 6.

Youth designer, Miss Mi-won Lee; costume exhibition for junior. (1966, April). *Yeowon*, p. 321.

Visit 「Pinocchio」 clothing store. (1966, January). *Yeosang*, pp. 426-427.

Waste basket. (1963, June 5). *Dong-A Ilbo*, p. 7.

What did you do and how did you do it?. (1965, December 28). *Chosun Ilbo,* p. 5.

Women's front (15) designer Yun-jung Park. (1960, March 12). *Dong-A Ilbo*, p. 4.

Women's salon, spring dialogue. (1969, April). *Yeowon*, p. 29.

Women's suit Vienna. (1964, May). *Yeosang*, p. 309.

11 costume designer. (1967, March). *Shin(New)-Dong-A[신동아]*, pp. 39-41, 43-44, 47, 49-51, 53, 55.

Analyzing the Evolution of 1960s Korean Fashion Designers

-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Social Environments and Transformation in the Operation Methods of Boutiques and Brands -

Shinmi Park[+]

Professor, Dept. of Fashion Lifestyl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Korean fashion designers who were active in the 1960s and to analyze how their endeavors were reflected in social environments. To this end, th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follows. First, based on media materials, who are the newly discovered designers from the 1960s. Second, who are the designers who debuted under the mentorship of first-generation designers active in the 1950s, and what were their trajectories in the fashion industry. Third, who are the designers that majored in arts and humanities, and how were they different from existing designers. Fourth, who are the designers reflecting the social environment in the 1960s, and what kind of activities did they engage in. Fifth, what are the works of these fashion designers, additionally extracted from media analysis, and what inaccuracies are there in fashion history revealed through cross validation with previous studies. The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view and content analysi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media sources including 244 newspaper articles, 181 articles of 『Yeowon』, and 158 articles of 『Yeosang』. This paper conducted in-depth analysis by sorting the materials by media type, then by categorizing the materials chronologically and by each designer. The study extracted 48 designers who debuted in the 1960s and identified 40 boutiques. Contrasting from the 1950s, the 1960s witnessed the emergence of designers who received education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institutions, and designers with diverse backgrounds in humanities, fine arts, sculpture, and theater. It was a period where the first-, second- and third-generation designers, collectively shaped and established the system of modern Korean fashion.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uncovering the Korean fashion designers of the 1960s who established the modern fashion system in Korea and analyzing their endeavors.

Key words : the 1960s Korean fashion, Korean modern fashion history, Korean fashion designers, Yeosang, Yeowon